

전국적 교권보호 시동… “교육청 현장개입·지원 뒷받침돼야”

교권보호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
수도권·부산 등 교권보호 부서 신설
교육청 개입 등 실질적 지원 필요해
외부 개입시 회복탄력성 저하 우려도

드라마 ‘참교육’이 지핀 교권 보호 논의가 전국 교육청의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본청에 전담 부서를 두고 부산·인천·충남 등도 지원 조직과 인력을 늘렸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교육청의 직접 개입 권한과 인력·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정책국에 교권정책과를 신설한다.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모아 교권 침해 사안 대응은 물론 저경력 교사와 장애 교원 지원, 근무 환경 개선, 상호존중 문화 확산, 법률·제도 개선 업무를 맡는다. 행정관리담당관에는 학교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법률지원팀을 새로 두고, 교권 침해가 아닌 학교 법률 사안까지 지원을 총괄하며 관련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하고, 8월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의 발대식을 열었다. 당초 50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1823명이 지원해 인원을 늘렸다. 전담관은 교원 110명, 도

민 30명,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을 겪는 교원을 사안 초기부터 종결 때까지 1대1로 지원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내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단위 지원 체계도 넓어졌다. 부산

시교육청은 지난 9월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마다 센터장, 변호사, 장학사 각 1명과 직원 2명 등 5명을 배치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운영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변호사 선임을 돕고, 교권보호위원회에 변호사가 동행한다. 시교육청이 위촉한 자문변호사 60여 명도 법률 자문에 나선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교육활동보호대응팀, 법률지원팀을 하나로 합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조직했다. 충남교육청은 9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18명)을 가동하며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갖췄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권보호지원단을,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했다.

교권 보호를 교육행정 차원에서 책임지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원단체는 조직 신설 자체보다 교육청이 실질적

인 대응 주체로 나서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종결하고 고발·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도 반복적인 수업 방해나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시 개입하고, 학교에 대응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현장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인력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변호사, 경찰 등 외부 전담관이 투입되면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인 갈등 해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김영진 대표는 “특정 학부모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학부모회를 통해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교권보호전담관이 투입되면 공동체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교육이 목표로 하는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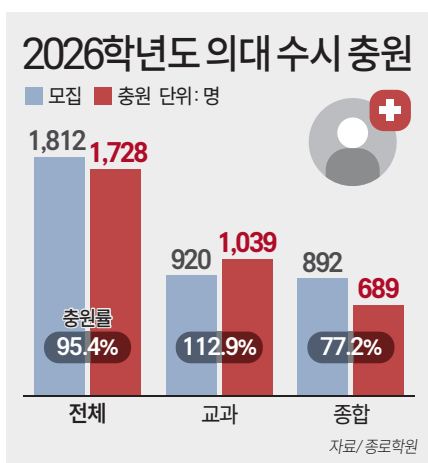
의대 수시 총원 95.4%… 올해 이탈 더 는다

지난해 의대 수시 등록포기 1728명
중복합격으로 추가합격 도미노 현상
올해 지역의사제로 이탈 증가할 것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합격자들의 연쇄 등록 포기로 인한 추가합격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모집인원을 웃도는 빈자리가 발생하는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발전형이 이 같은 이탈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의 수시 교과·종합전형 모집인원 1812명 중 합격자 등록 포기로 발생한 총원 인원은 1728명(95.4%)이다. 합격자는 평균 2.0개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시에서 첫 합격자를 가려낸 뒤에도 모집인원에 맞먹는 규모의 추가 합격이 이뤄졌다.

최초 합격자가 다른 대학에 등록해 자리가 비면 예비 합격자가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수험생이 다시 다른 대학에 등록하면 추가 총원이 이어진다. 한 차례의 등록 포기가 다른 대학의 추가 합격으로 번지면서 도미노처럼 합격자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권 의대 교과전형 전국선발의 총원율은 146.4%로 집계됐다. 지방권 19개 대학을 합산하면 222명 모집에 325명이 총원된 것이다. 이 전형 합격자는 평균 2.5개 대학에 중복합격했다. 권역별로는 충

청권 183.3%, 대구·경북 181.8%, 호남 177.8% 순이었다. 지역인재전형은 624명 모집에 607명이 총원돼 97.3%였으며, 이 가운데 강원이 115.8%로 가장 높았다.

올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지역의사제)이 처음 도입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이사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의대 모집정원 확대도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가 이탈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다. 우선 합격 자리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는 점이다. 올해 지역의사선발전형은 31개 의대에서 488명을 뽑고, 이 가운데 458명(93.9%)을 수시에서 선발한다. 수시에서만 507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1.08대 1에 달했을 만큼 관심도 높다. 의무복무 조건도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전형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는 만큼, 일반 의대나 지역인재에 동시 합격한 수험생의 등록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수정 기자

삼육대, 120주년 맞아 학사·캠퍼스 재구성

삼육대학교가 전공 간 경계를 없애는 학사 개편과 캠퍼스 공간 재구성 계획을 내놔다. 인공지능(AI) 교육을 전 학부로 확대하고, 지하 공간에 교육·문화 시설을 모으는 등 대학 운영 전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삼육대는 지난 23일 개교 120주년 기념식을 열고 ‘SU-RISE 미래캠퍼스’ 비전을 발표했다.

제해중 총장은 기념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AI 확산 등을 대학이 대응해야 할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학사 제도 및 캠퍼스 공간의 혁신을 제안했다.

캠퍼스 공간 개편안도 공개했다. 교육·문화 복합 시설을 지하에 배치하는 ‘지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상은 차량 통행을 줄인 친환경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김수정 기자

호서대 ‘조기취업 학과’ 취업·학위 동시에

호서대학교가 기업 현장에서 일하며 학위를 취득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산업별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호서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사업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학과와 물류유통학과, 첨단산업AI공학과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학생을 함께 선발하고 채용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학생은 1학년 때 전공 집중교육을 받고, 2학년부터 협약기업에서 근무하며 학업을 이어간다.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3년 만에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등록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학과별 교육 과정은 각 산업에 맞춰 구성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학과는 반도체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김수정 기자

서울 유치원 신입생 모집… 최대 3곳 지원

내달 2일 공·사립 신입생 추첨 모집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다음 달 시작된다. 신입생은 최대 3곳까지 지원할 수 있고, 선발은 접수 마감 후 희망 순위를 반영한 자동 추첨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치원별 모집 요강은 28일부터 유보통합포털에

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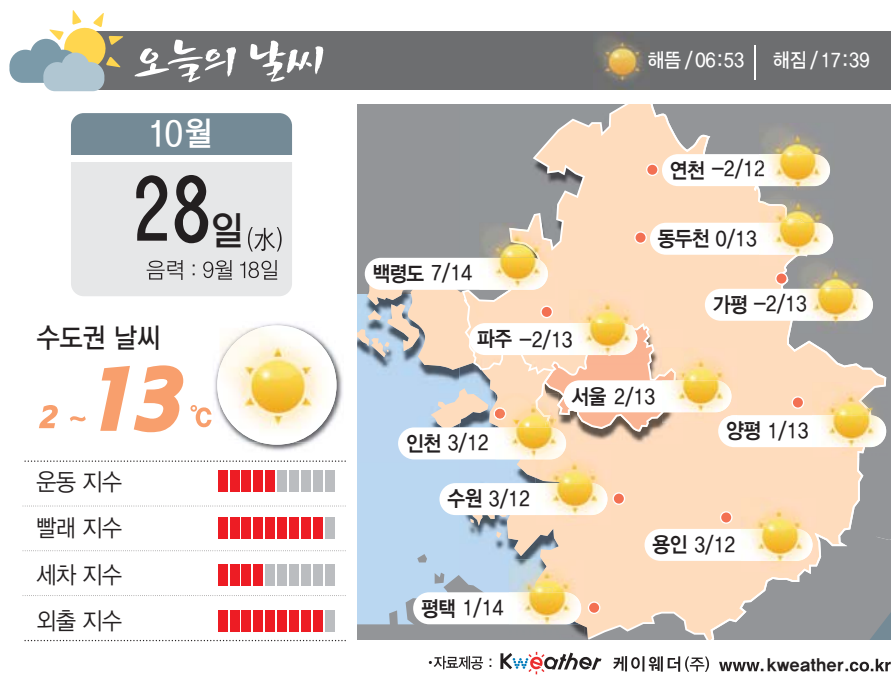
원서 접수는 유보통합포털의 ‘유치원입학’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학부모는 회원 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하고 희망 유치원에 지원하면 된다. 접수 현황과 추첨 결과도 해당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2023년생(3세), 2022년생(4세), 2021년생(5세) 유아다. 우선모집 원서는 다음 달 2~4일, 일반모집 원서는 17~23일 접수한다. 일반모집 이후 정원이 남은 유치원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2

일까지 추가모집을 시행한다.

지원 횟수는 신입생 최대 3곳, 재원생 최대 2곳으로, 지역이나 공·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법정 저소득층 가정과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 취약 유아와 쌍둥이, 다자녀·다문화 가정 등도 유치원별 기준에 따라 우선모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선발은 자동 추첨 방식이다. 학부모가 입력한 희망 순위를 반영해 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추첨한다. 우선모집 결과는 다음 달 9일, 일반모집 결과는 다음 달 26일 발표한다. /김수정 기자



▲트럼프 “이란전 곧 종료될 것…과거 휴전은 시간낭비 불과”
▲우러전쟁 국지휴전 돌입…키이우 방면서는 교전 지속 /사진 뉴시스

▲룰라 브라질 대통령 “李 축하에 감사…조만간 만나길 기대”
▲트럼프 “부정선거 제보 시 100만달러”…‘선거 불복’ 포석 관측도

▲미·캐나다 무역합의 진전…중간선거 이전 합의 가능성도
▲이스라엘 총선 투표…네타나후 재집권 여부에 관심